아버지 부재로 시작된 4·3 진실찾기 여정

김관후 시집 '서천꽃밭에…'
'통곡'의 가족사에서 출발해
4·3 발발과 전개 과정 그려
미국 책임론도 별도 장 엮어

책날개에 적힌 그의 이력이 창작 배경을 말해준다. "1949년 10월 2일 오전 9시 정뜨르비행장에서 아버지가 희생되었다. 시인은 오직 글쓰기로 행방불명된 아버지찾기를 시작하였다." 제주 김관후 시인의 시집 '서천꽃밭에 계십니까'이다.

1991년 시인으로, 1995년 소설가로 등단한 시인은 그동안 시집 '섬곶 떠난 내 아비'와 '함덕리', 소설집 '어허렁 달구'와 '본풀이'를 냈다. 아버지의 부재에서 출발한 4·3의 기억은 그의 문학에는 물론 '4·3과 인물' 등으로 이어졌다. 지금은 한라일보에 '김관후 작가의 시로 읽는 4·3'을 연재하고 있다.

신작 시집 역시 "내 심장을 후벼파는 것을 언어로 옮길 수 있을까"라고 자문하며 길어낸 4·3의 글로 채워졌다. 수형인 명부가 공개된 이후 아버지가 언제, 어디서 희생되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된 시인이 고인에게 드리는 헌시이자 사부곡인 표제시를 포함 80편 넘게 실렸다.

'하느님이 몹쓸 바람에/ 오돌오돌 떨고 있다가/ 눈발 따라 산고개를 넘는다'는 '통곡'으로 열리는 시집엔 '할머니의 한숨'을 듣고 자란 '빨갱이 새끼'가 아버지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을 파헤쳐온 지난 여정이 담겨있다. 고통의 가족사에서 출발한 시집은 '섬은 열렸으나', '관덕정으로 모여라', '총파업으로 맞서자', '출동을 거부한다', '조천중학원', '고문', '부녀동맹 수난', '백색테러단' 등 4·3의 발발과 전개로 연결된다. 그 과정에 쌀과 자유를 달라, 탄압을 멈추라고 소리쳤던 제주사람들이 있었다.

시인은 '조선은 미국의 적'이란 별도의 장에서 '원인에는 흥미가 없다/나의 사명은 진압 뿐'이라던 로스웰 브라운을 비롯 존 하지, 써먼 스타우트, 아놀드, 윌리암 딘, 제임스 하우스만, 윌리암 로버츠 등 미군정 수뇌부의 발언을 인용하며 4·3의 미국 책임론을 읊는다. 이는 학살을 방조하고 묵인한 채 사죄나 반성없이 본국으로 떠나버린 미군정에 대한 분노와 닿는다.

김관후 시인처럼 4·3을 줄곧 시에 담아온 제주작가회의 회장인 강덕환 시인이 쓴 해설 '민중수난의 말살된 기억을 글로써 되살리는 일'이 더해져 시집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제주콤. 1만원.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민주주의 정신 보여준 4·3의 사람들

여수 출신 주철희 장편소설
'탄압이면 항쟁이다' 펴내

"1948년 당시 학살되신 분들을 향해 대체로 아무것도 모른 채 억울하고 무고하게 죽임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살아 있는 사람의 위로와 위안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이는 당시 학살되신 분들을 모독하는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자주적 사관과 사람 중심의 관점'을 바탕으로 역사를 연구하며 강연과 글쓰기를 이어온 전남 여수 출신 주철희 박사의 장편소설 '탄압이면 항쟁이다'는 그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주 작가는 '4·3항쟁'을 "슬픈 비극적 역사라고 치부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그것은 '공동체 파괴와 인민의 억압에 맞서고, 단독선거를 통한 분단 정부수립을 반대한 투쟁'이었기 때문이다.

소설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넘나드는 초현실적 배경 아래 역사적 인물과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그려졌다. 4·3을 72년 전 과거에서 현재로 불러내면서 저승에서 온 네 명의 노인을 등장시켰다. 그들 중에서 4·3당시 9연대 연대장 김익렬, 김달삼이란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이승진, 김익렬의 후임으로 박진경을 암살했던 문상길 등 세 명은 실존 인물이다. 여기에 서북청년단에서 활동했던 오정호 등 허구의 인물이 더해진다.

작중 인물들은 4·3과 관련한 주요 사건이 펼쳐진 장소로 독자를 이끈다. 3·1 경찰 발포사건, 4·28평화협상, 오라리 방화사건, 초토화 작전 등은 제주도의 역사가 해방 후 격동하던 한반도의 축소판이었음을 깨닫게 만든다.

작가의 모습이 투영된 것으로 보이는 소설 속 고태현 박사는 말한다. "제주4·3항쟁이 역사적 사건으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역사 본질에 더욱 집중하고, 이를 올곧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탄압이며 항쟁이다'라는 외침이 민주주의 역사의 참모습이자 진실"이라고. 흐름출판사. 1만4000원. 진선희기자

고재만의 제주어기림훈판 <223>

구성: (사)제주어보전회
<재만그림글자 응용>

좀녜 ᄀᆞᆯ앐저. "하르바지, 개ᄀᆞᆺ디 가단 웃드르 예펜삼춘 만나신디양-"
하르바지 ᄀᆞᆯ멘. "아아 순텍이 삼춘 만난다? 뭣엔 ᄀᆞᆯ아냐? 요ᄒᆞ루기 태풍 피헨 웃젠 ᄒᆞ여냐?"
좀녜 ᄀᆞᆯ앐저. "예- 하르바진 펜안ᄒᆞ여시넨 ᄒᆞᆸ데다. 경ᄒᆞ곡 ᄌᆞᆫᄌᆞᆫᄒᆞᆫ 바릇궤기 ᄋᆞ나믄 ᄆᆞ리 주난 ᄋᆞ젼왓수다. ᄒᆞᆯᄊᆞᆯ 큰 궤긴 멩질 차례상에 올리켄 ᄒᆞ멍예 그때랑 ᄋᆞ멩이영 집이 왕 밥 먹으렝ᄒᆞ멍 갑데다."
ᄋᆞ멩이 ᄀᆞᆯ멘. "누님- 경ᄒᆞᆫ디 삼춘은 궤길 어떵 낚앗젠마씀?"
좀녜 ᄀᆞᆯ앐저. "어, 삼춘 말로는 바당물 싸지난 웅덩이에 가돠진 궤길 잡아온 거엔 ᄒᆞ여라."

*** 제주어 풀이**

*예펜삼춘 : 여자삼촌. *만난다? : 만났니?
*뭣엔 ᄀᆞᆯ아냐? : 뭐라 하드냐? *웃젠 ᄒᆞ여냐? : 없다고 하드냐?
*펜안ᄒᆞ여시넨 ᄒᆞᆸ데다 : 안녕하시냐 했어요.
*바릇궤기(개ᄀᆞᆺ궤기, 갯ᄀᆞᆺ궤기, 갯것궤기, 갯겟궤기, 바당고기, 바당궤기, 바릇궤기, 바르코기, 바르궤기) : <이름> 바다에서 나는 생선을 통틀어 일컫는 말.
*멩질(멩일) : <이름> 설날이나 추석 따위의 명절.
*먹으렝ᄒᆞ멍 갑데다 : 먹으러 오라고 하면서 갔어요.
*궤길 어떵 낚앗젠마씀? : 고기를 어떻게 낚았다고 해요?
*싸다(뿔다, ᄊᆞ다) : <그림> 바닷물이 썰물이 돼 나가다. 써다.
*바당물 싸지난 : 썰물이 되니깐.

-부호-/<이름>:이름씨(명사)/<그림>:그림씨(형용사)/<움직>:움직씨(동사)/<어찌>:어찌씨(부사)/<대이름>:대이름씨(대명사)/<셈>:셈씨(수사)/<느낌>:느낌씨(감탄사)/<토>:토씨(조사)/<때소>:때가림소/<익은말>:익은말/<속담>:속담 (출처: '제주말 큰사전' 송상조저, 한국문화사.1991)

고재만 화백(전문가)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문화가 쪽지

비대면 오페라 갈라콘서트

제주그랜드오페라단 갈라콘서트가 이달 8일 오후 7시30분 제주대 아라뮤즈홀에서 비대면 온라인 공연(유튜브 생중계)으로 열린다.

제주대 음악학부 교수와 강사, 제주도립제주합창단원 등으로 구성된 제주그랜드오페라단은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란 이름 아래 '코지 판 투테' 등 오페라에 흐르던 아리아와 이중창을 선사한다. 김정희 박웅 정혜민 강정아 박상희 이채영 허향수 강창오 문순배 윤상민이 출연한다.

인형극 '삼천살 사만이' 공연

함덕리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사업으로 이달 8일 오후 7시 문화예술연구소 함덕32(제주시 조천읍 함덕로 32 2층)에서 인형극 '삼천살 사만이'가 공연된다.

이번 작품은 제주 무속신화 '멩감본풀이'의 주인공인 사만이를 소재로 했다. 김재희·박민량씨가 연출을 맡았다. 관람료는 무료. 선착순 10명에 한해 관람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hamdeok32.co.kr) 참고. 문의 784-6600.

'해양제주' 학술대회 개최

국립해양박물관은 이달 8일 국립제주박물관, 제주대박물관과 공동으로 '해양제주, 그 문명사적 성찰' 학술대회를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선사시대 제주도의 해양고고학적 궤적, 동아시아 해상왕국으로서의 탐라, 신화 속의 해양제주, 제주인의 세계인식과 그 문명사적 접촉, 서양인의 제주인식과 그 문명사적 접촉, 기후변화와 제주바당 수산생물에 대한 발표가 이어진다. 추후 홈페이지 등에 발표 동영상 등을 공개한다.

제주합창단 지휘자 공모

제주시가 제주도립제주합창단 상임지휘자를 전국 공모한다.

원서 접수는 이달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다. 제주시 문화예술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서류전형 결과를 거친 합격자에 한해 실기·면접을 실시하고 최종 합격자를 제주합창단 상임지휘자로 위촉하게 된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 상반기 지휘자 공모에서 24명이 응모했으나 '최종 적격자 없음'을 결정했다. 문의 728-2711.

'정의현 객사 전패' 도유형문화재 예고

'정의현 객사(客舍) 전패(殿牌)'가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됐다.

전패는 객사에 모셔진 왕을 상징하는 일종의 위패다. 해당 전패는 '제주계록(濟州啓錄)' 등 사료에 의하면 도난당한 변고 뒤에 1847년(헌종 13) 6월 새로 제작된 것이다. 경술국치 당시 객사 철폐 위기 속에 정의향교 재장(齋長) 오방렬 등이 통문을 돌려 유림들을 규합해 전패를 수호했고 일본 관헌들이 다시 강제로 객사를 헐려하자 정의향교 명륜당 뒤에 있던 오의사묘(吳義士廟, 의사 오흥태를 모신 사당)에 몰래 옮겨놓는다. 오방렬은 전패를 숨긴 사실이 발각돼 1914년 형독(刑毒)으로 죽음에 이르렀다고 전해진다.

제주도세계유산본부 측은 "제주도에 전하는 유일한 전패로 희소성을 지녔고 제작 경위, 이전·보전 내력 등의 사실들이 온전히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높이 평가됐다"고 했다. 진선희기자